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75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2월 4일)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3월 7일 서울 봉은사에서 봉행된 자승 대종사 100재에서 해봉문도회 의장 탄원 스님이 자승 대종사 영전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봉정하고 있다.

"무주처열반, 자승 대종사 언제나 함께"

봉은사서 자승 대종사 100재, 주요 인사 대거 참석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비롯해
진우 스님 등 종단 대표자들
자승 대종사 영전에 정진 다짐
정관계 인사 포함 500명 참석
진우 스님 "대종사 덕화 기려"

팔공총림 방장 의현 대종사는
대학생 전법기금 3억원 기탁
탄원 스님 "모든 분들께 감사"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상월결사를 이끌며 대중불교 수행풍토를 확산하고, 대학생 전법에 매진한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원적 100일을 맞아 사부대중이 불교중흥을 위해 보다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3월 7일 경내 법왕루에서 '해봉당 자승 대종사 100재'를 봉행하고, 대종사가 남긴 전법 유지와 향훈을 기렸다. 100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를 비롯한 원로의원스님들과 팔공총림 방장 의현 대종사, 총무원장 진우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육원장 범해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 등 교역직스님들,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과 각 교구본사주지스님들, 중앙종회의원, 상월결사 인도순례단과 동국대 관계자,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등 각 포교·신도단체장, 국회 정각회 주호영·이원욱 의원 등 500여 대중이 운집했다.

자승 대종사 영전에 삼배를 올리며 시작된 100재에서 대표 헌향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했다. 이어 해봉문도회 의장인 탄원 스님이 대종사 원적 이후 추서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영전에 봉정했다.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비구니종회의원 대표 정운 스님, 최진식 봉은사 신도회장, 이명숙 봉은사 신도회 사무총장이 각각 사부대중을 대표로 헌화했다. 종사영반은 종단 어산어장인 인묵 스님을 필두로 법안·도피안·보일 스님이 맡았다.

진우 스님은 추모사에서 "자승 대종사가 몸소 실천한 신행의 연속이 세상을 향한 한국불교의 자존이자 결집"이라며 "아직 더 말씀하시고 더 보여주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각자의 몫이라는 스님의 안목이셨으니 사부대중은 저마다의 위치에서 세상을 비추는 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대종사의 향훈을 되새겼다.

진우 스님은 이어 "나와 우리만이 아닌 공심의 저울로 원력의 크기를 가늠하면 수행과 전법의 가치는 세상을 향해 우뚝 서게 된다. 대종사께서 평소 강조하신 진솔함이었으니 이 또한 대종사를 추모하는 사부대중의 공덕"이라며 "꽃잎이 떨어지듯 소리 없이 적멸에 드셨으나 추모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그 향기 전하는 정진의 공덕은 쉼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주처열반'을 언급한 진우 스님은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으니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한다. 수행과 전법의 곳곳에서 안주하거나 방일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는 세상 어느 곳에나 있어야 할 열반의 본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팔공총림 방장 의현 대종사는 사단법인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기금으로 3억원을 희사하며 생전 대종사가 화두로 던진 '부처님 법 전합시다' 가치에 뜻을 함께했다. 의현 대종사는 이날 기탁한 3억원을 "저잣거리를 돌며 직접 탁발해 모은 정재"라고 설명한 뒤 "앞으로도 계속 탁발하면서 대학생 전법의 성공적인 회향을 위해 분골쇄신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승 대종사를 '선지식'으로 높이고 스스로를 '소승'이라고 낮춰 표현한 의현 대종사는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께서도 살림이 어렵겠지만 대학생 전법기금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의현 대종사 외에 지난 2020년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최고령 동참자였던 이채순 보살도 100재에 참석해 대학생 전법기금 1000만원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이에 해봉문도회 의장 탄원 스님은 "은사스님 뜻을 받들어 종단 발전에 기여하는 문도회가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으며,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자승 스님께서 전법이라는 숙제를 남기셨다. 앞으로 스님 유지를 잘 받들어 대학생 전법에 매진하겠다"고 참석 대중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정치인들 육바라밀행으로 보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국회정각회, 3월6일 신춘법회 봉행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 초청 법문
의원들, 중도 · 화쟁정신 실천 '다짐'
진우 스님 108배 정진 동참하기도

여야 불자 국회의원들이 불교의 중도·화쟁 정신으로 상생의 정치를 이룰 것을 다짐했다.

국회 정각회(회장 주호영)는 3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년도 신춘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 법명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우인 정사(불교총지종 통리원장)·만청 스님(대각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진호 스님(원융종 총무원장) 등이 참석했다. 수석부회장 덕수 스님을 대신해 천태종 종의회 부의장 경천 스님이 자리했다.

국회 정각회에서는 주호영 회장을 비롯해 이원욱 명예회장, 이헌승 수석부회장, 김영배 수석간사, 이수진 간사, 황보승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자의원들이 앞장서 화쟁과 중도 정신으로 상생의 정치를 펼쳐나갈 것을 제안했다.

주호영 회장은 "한국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불자의원들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현실 정치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자의원들부터 중도와 화쟁 정신을 바탕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해 지혜와 자비의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며 "청정법안(淸淨法眼)의 바른 지혜의 눈을 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겨 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사로 나선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정치인들이 육바라밀행을 통해 보살의 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누구보다도 정치인들이 불교를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에게 '보살이 되라'고 한다"면서 "보살이 하는 행동이 육바라밀이다. 정치인들이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보살이 하는 행동인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고 설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정치인들에게 선(禪)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스님은 "순간순간 찰나 마음을 내려놓는 방하착을 하고 이것이 연속이 되면 스스로 편안해진다. 이것이 진짜 선의 모습"이라며 "선정바라밀에 이르면 지혜가 나타나고 걸림없이 행동할 수 있다. 그런 삶 속에서 나오는 행동은 육바라밀행이 되고 결국은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

법회 참석 사부대중은 국태안민(國泰安民)을 이룰 정책을 입안할 지혜의 눈을 뜨고, 선명상 대중화에도 앞장설 것을 부처님께 발원했다.

한편, 진우 스님은 법회에 앞서 국회 본관 정각선원에서 108배 정진을 진행했다. 이날 정진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스님과 국회 정각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108배 정진 이후에는 국회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차담을 이어갔다. 신중일 기자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단협 부회장단 스님들과 정각회원들이 삼귀의를 하고 있다.



출가장려 기금 모연 안내

종단은 부처님 가르침의 상속자인 승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출가장려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대흐름에 발맞춰 출가 대중화·현대화를 위한 출가장려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세우다』 출가장려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연을 하고 있으니 사부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금 기간** : 2024. 3. 11(월) ~ 2024. 5. 31(금)
- **모금 사용처** :
  - 출가홍보책자 『슬기로운 출가생활』(담앤북스) 보급운동 (군법당, 대학교 불교동아리 등)
  - 부처님오신날 KBS 특집다큐 <출가> 제작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 방영)
  - 출가장려 캠페인 홍보, 교육, 설명회, 지원사업 등
- **모금 동참 계좌** : 농협 301-0248-0882-41(예금주 : 아름다운 동행)
  ARS : 060-700-0012(한통화 3천원)
  문의 : 02-6273-0108(아름다운 동행), 02-737-0863(미래본부)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